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여성의 출가

어느 날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 명으로서 재기발랄한 아난다가 부처님과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한다. "세존이시여, 여성은 아라한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장애가 많기 때문이니라" "설혹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가를 허락하는 것이 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죽자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께 출가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몸으로 출가하는 것은 장애가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출가해서는 평생 부처님을 시봉한 아난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아난다가 이상의 질문을 통해 부처님을 설득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인가 동국대학에서 강의하던 중 어느 여학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가 있다. 화학과 여학생으로 기억되는데 자기는 불교를 결단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불교관련 책을 읽다가 '차라리 불구덩이에 남근을 넣을지언정 여성에게 넣어서는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모멸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을 폄하하고 차별하는 종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여학생의 항변이었다. 물론 그것은 계율을 엄수하라는 의미에서 그처럼 강하게 표현된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기실 불교문헌 안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말 부처님께선 여성을 남성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부처님께서는 계급의 차별을 부정하고,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러한 사안 보다 훨씬 가벼운 성차별을 인정하셨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 때문이다.

기실 당시 인도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했다. 바라문교의 사상은 여성을 매우 천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었다. 또한 출가자는 닭소리나 개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숲 속에 거주해야 했다. 이것은 인가를 멀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거기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서도 안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이 출가하여 수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출가에 대해 망서렸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하파자파티가 처음 여성의 몸으로 출가한 이래 많은 여성들이 출가하여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흔히 <장로니게>로 알려진 경전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증일아함경>권3 비구니품에는 수행을 통해 일가를 이룬 비구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각 방면에 뛰어난 여러 명의 비구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국왕의 존경을 받은 비구니로 마하파자파티를 거명한다. 지혜롭고 총명한 비구니는 케마며, 신족통이 뛰어나서 모든 신들을 감동시킨 비구니는 우발화색(일명 연화색)이다. 두타행이 뛰어난 비구니는 키사고타미이며, 천안통이 뛰어난 비구니는 사쿨라이다. 선정에 들어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비구니는 사마며, 이치를 분별해 널리 도를 펼친 비구니는 파두란사나이다.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않은 비구니는 파타차라이며, 믿음의 해탈을 얻어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경지 올라간 비구니는 캇차야나요, 네 가지의 변재를 얻어 두려움이 없는 비구니는 최승이다. 자기 전생의 수없는 시간을 아는 비구니는 밧타카필리안이요, 얼굴이 단정하여 남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비구니는 혜마사이다. 외도를 항복시켜 정법을 세운 비구니는 소나며, 이치를 분별하여 가닥을 잘 설명한 비구니는 담마딘나다. 더러운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비구니는 우다라이며, 모든 감관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은 비구니는 광명이다. 의복을 항상 정갈하게 하여 법다운 비구니는 선두이며, 여러 가지를 의론하되 걸림이 없는 비구니는 단니다. 게송을 잘 지어 여래의 공덕을 찬탄한 비구니는 천여며, 많이 듣고 두루 알며 사랑과 지혜로 아랫사람을 맞이한 비구니는 구비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출가자들도 여법하게 수행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행과 깨달음의 즐거움 속에서 비구들과 다름없이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과연 여성을 천시했을까

어려운 출가수행생활 염려한 것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마음밖에서 道 구하지 마세요"

지상 백고좌

청 화 스님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은 지계없는 수행은 모래로 밥짓는 무모한 일이라고 늘 강조한다.

염불은 내가 '참나'를 생각하는 것

행복·불행·화합 모두 마음 작용일뿐

고인들 말씀에 무슨 공부 방법이든 '득정(得正)하면 가야(可也)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법에 있어서 주문을 외우든 화두를 참구하든 묵조선을 하든 염불하든 바른 도리 바른 원리를 얻으면 좋다는 말입니다. 꼭 염불해야만 좋고 꼭 묵조선을 해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행법을 취하든지간에 그 본분사, 본래면목 자리, 진여불성 자리를 안 놓치는 것을 득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른 도리를 얻지 못하면 꼭 화두만 든다고 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꼭 묵조만 한다고 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는 본체를 안 여읜, 본체에 걸맞는 공부가 참다운 공부요 참다운 선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못하니까 맨 처음에 화두를 내세운 도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한 것이지만 뒤에 사람들은 부질없는 분별시비를 합니다. 묵조선도 "고인들의 어구(語句)나 기연(機緣)에 대해서 부질없는 분별시비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본래 부처인지라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저절로 밝아져서(寂然而應) 부처가 될 것이 아닌가?"이렇게 그 당시에는 필요하니까 나왔던 것입니다.

대혜종고(1089~1163) 스님도 위대한 도인인데, 그냥 묵묵하니 고목(枯木)처럼 앉아서 꾸벅꾸벅 혼침에 떨어지니까 마땅히 무엇인가 참구를 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화두선을 역설했고 그리고 선사들의 어구에 치우쳐서 따지고 부질없는 의심을 하니까 천동정각(?~1157) 스님이 묵조선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염불은 부처님 당시부터서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이라고 무슨 경전에나 다 나와 있고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또,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불은 따지고 보면 내가 참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부처가 부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선(禪)이 됩니다.

그런데 깊은 고려 없이 염불은 하근기(下根機) 중생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큽니다. 우리네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천념(千念)을 헤아리면서 애쓰고 몇 십년 동안 염불한 분도 어느 스님네가 "염불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화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염불을 그만두고서 억지로 화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인 동시에 병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세에 수월(1855~1928) 스님은 '일자 무식'인데도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로 깨달은 분 아닙니까? 모두가 다 부처라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섣부른 법문은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극락세계가 저 십만억 국토를 넘어서 있다. 또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우리 마음 밖에 있다."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다운 염불도 못되고, 염불선(念佛禪)도 못됩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가 밖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이나 부처가 내 밖에 있어서 애쓰고 생각하면 우리를 돕는 가피를 주신다고 생각하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라,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요, 시방여래시법계신(十方如來是法界身)이라, 부처는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극락세계나 나무아미타불이나 정토(淨土) 법문을 말씀하신 경은 주로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인데 그런 경을 착실히 보아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실히 잘 안 보고 말을 합니다. 착실히 본다면 한 경 내에서도 방편과 진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저 밖에 있다'고 말씀해 놓고도 같은 경 내에서 '그대 마음이 바로 극락세계다. 닦으면 그대로 극락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근기 중생은 방편설(方便說)만 가지고 따지며 옳으니 그르니 합니다.

화두선·염불선·묵조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분별말고 오직 수행에 전념을

따라서, 참다운 염불도 본래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고 내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부처 이름을 자꾸만 외워야 자기 암시가 되어 가까워지겠지만 부처님 이름을 외지 않고서 분별하는 생각만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부처와 가까워지겠습니까? 화두도, '무자'나 '이뭣고'나 또는 '판치생모(板齒生毛)'나 모두가 다 일체 유루적(有漏的)인 상대 유위법을 떠나서 오직 불심(佛心)만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안이나 염불이나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묵조(默照)도 청정미묘하고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을 관조하니까 같은 것이고, 또는 공안도 제일의제(第一義諦)인 '한 물건' 자리를 참구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고, 염불도 부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스러운 극락이 십만억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방편이 되지만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만법이 본래 부처일 때는 바로 선(禪)인 것입니다.

외도(外道)와 정도(正道)의 차이는 무엇인가? 외도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합니다. 별스런 재주 있는 짓을 다해도 마음 밖의 무엇을 생각하면 외도인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화합도 모두가 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행동 바르게 하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 좋은가? 산을 생각하고 물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마음의 본래면목을 생각하는 것 같이 빠르고 쉽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정서(情緖)와 지혜와 의지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전생의 숙업 따라서 정서가 좀 더 많은 사람 또는 의지가 더 강한 사람 또는 지혜가 더 밝은 사람 등으로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나 지혜나 의지가 조화롭게 갖추고 있으면 모르거니와 우리 중생들은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지혜나 의지, 정서가 다 조화롭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 불성은 원래 원만무결한 것이지만 중생은 숙업(宿業) 따라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서나 의지로 참구하는 쪽보다 화두를 의단(疑團)으로 참구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고, 확신을 위주하고 의단을 싫어하는 사람은 화두없이 묵조선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어느 쪽으로 가나 다 성불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겠지요. 자기 근기에 맞으면 더 빠르고 쉬울 것입니다. 또는 정서가 수승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별로 따질 필요가 없이 다만 근본 성품인 생명의 실상을 인격적으로 그리워하는 흠모심을 냅니다. 원래 부처인지라 어떤 누구나가 다 부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나 다 한결같이 염불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두하는 분도 기도를 할 때는 '아미타불'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영가천도 할 때는 또 부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뿌리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로 자연의 도리며 몇 만생을 윤회해도 필경에는 부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거니 이 몸뚱이를 비롯한 모든 집착 때문에 공부를 잘못하는 것이지, 일체 분별망상이 없을 때는 바로 선정(禪定)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두선, 묵조선, 염불선 수행법이 어느게 수승하다 아니다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질없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새삼스럽게 역설하게 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기자가 본 청화 스님

현대물리·철학 응용 순수에너지 설명

80고령에도 매달 광륜사서 대중법문

'맑은 꽃 비상하게 자기를 다스린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향훈.'

최하림 시인이 청화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표현한 말이다.

청화 큰스님이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스님은 40여년간 주로 토굴에서 생활해 오다가 17년전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문 태안사 중창불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달 셋째 주 일요일 도봉산 광륜사 정기법회에서 법문을 하시는 청화 큰스님. 청화 스님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가까이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법열을 느낀다고 한다.

큰스님은 평소의 모든 기력을 모아 매달 광륜사 정기법회(셋째 주 일요일 오후 1시)의 법단에서 사력을 다해 설법하신다. 오랜 장좌불와의 수행에서 얻은 견처를 마지막으로 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해 필생의 원력으로 보였다.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4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5년제 중등학교과정을 마친 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고향 무안에 청운고등공민학교(현 망운중학교)를 세워 후학을 지도했다. 현대 물리학과 철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스님은 청년시절부터 여러 서적을 섭렵했다. 그러나 궁극에도 풀리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의문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는데 금타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의문을 풀게 되었다. 스님이 스승 금타스님의 유고를 모아 펴낸 <금강심론>에는 모든 수행법과 수행의 위차를 종합 회통하여 해탈 16지로서 수행차서를 정립해 놓았는데, 특히 불교의 우주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월16일 도봉산 광륜사 정기법회에서 법문하는 청화스님.

스님은 이같은 금타 스님의 영향으로 자주 법석에서도 현대물리학과 철학 등을 불교적으로 풀이해 설법하신다.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물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를 분석하면 소립자 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텅 비어버리는 공의 세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순수에너지가 바로 불성이라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양자론과 현대과학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순수 에너지의 실체를 설명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를 스스럼없이 펼쳐보이시는 것이다.

스님은 묵언과 장좌불와를 평생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오셨다. 상원, 백장암 등 여러 토굴에서 50여년간 늘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한치의 게으름도 용납없이 수행에 매진하셨다.

늘 자비로운 모습과 진실한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참 수행자의 빛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항상 새로운 발심을 하게 만든다. 2년전 큰스님을 친견했을 때, 그 겸손하신 말씀이 늘 뇌리에 맴돈다.

"내가 수행을 잘못했거든요. 수행을 잘 했으면 삼명육통을 다해서 신통자재할 것인데, 수행을 흉내만 내놔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산스님의 스님 이야기

진각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던 때의 일이다. 윗반에 순박하고 뚝심 있는 강원도 사나이가 있었다. 내 고향이 강원도라서 더욱 정감이 갔는지 몰라도, 유난히 느껴지는 강원도 억양의 말투도 그렇고 생긴 것도 울퉁불퉁한 감자바우의 전형이었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소식을 모르지만 내 기억속의 진각스님은 참 지극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번은 명부전에서 칠일기도를 시작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신심이 나서 스스로 시작한 기도라서인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더니 회향하는 날 본인도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명부전 안에 모셔진 시왕탱화에서 전기가 합선되어 불꽃이 튀듯이 법당 안을 한바퀴 돌아 번쩍거리더라는 것이다. 놀란 스님은 겨우 기도를 회향하고는 큰방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상식으로 볼 때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거기에는 전기라고는 없는 곳인데 말이다. 혹 착시현상으로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아무튼 우리는 그것이 기도가 잘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유보하기로 하고 열심히 기도한 진각스님을 부러워했다.

그림 · 문병성

옛 어른스님들의 일화에서도 기도하고 정진하는데 유별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묵대사께서 어느 해 상운암에 있을 때 대중스님들이 모두 탁발을 나간 사이 참선 수행에 들게된다. 한 달 후 탁발수행을 끝낸 스님들이 돌아와 보니 가부좌한 진묵대사 얼굴과 옷자락엔 거미줄이 걸쳐 있고 방안엔 먼지가 가득하였다. 그때 스님은 "벌써들 돌아 왔느냐"고 말할 뿐이었다. 이것은 유(有)속에서 무(無)를 보이고 정(靜)속에서 동(動)을 보인 경지이니 아무런 걸림이 있을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처럼 지극하게 정진하면 비범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의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합리적 상식의 수준에서 착시나 환상으로 보는 경우다. 지극히 철저하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정서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기도와 수행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마구니의 장난으로 무시하고 더욱 매진하는 경우다.

요즘 우리는 영험을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이해한다. 특히나 젊은 세대의 합리주의적 사고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진묵대사나 진각스님의 모습은 그것을 기대하고 행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지만, 순수하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오늘 여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다만 행하지 않고 부정만 하거나 행하면서도 성급히 기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소중한 종교적 신비체험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각스님의 장점은 무뚝뚝한 가운데 보이는 자상한 포용력이다. 스스로 자부심으로 여기는 공군 헌병의 절도감도 몸에 배있는 매력중의 하나다. 마치 비행장을 혼자 지키듯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을 훤히 외워야하는 근무 습관이 일상의 생활 속에 자연스레 연결되어 매사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심지어 헌병 헬멧을 쓰고 근무하던 그 시절의 기상 넘치는 상상이, 정 반대 개념으로 살아가는 절에서도 여전히 꿈속에서 연결된다는 고백은 가히 스님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진각스님에게는 그런 기도의 뚝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요사이는 선방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 있다. 그때의 그런 신심과 뚝심이라면 선방 수행도 그에게는 큰 결과를 얻을 또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신심과 뚝심으로 지극히 기도

순박하면서도 흥과 멋 아는 스님

그런가 하면 통도사 승가대학 소임을 살 때는 아랫반 스님들을 합리적으로 대해줌으로써 인정도 있고 상·하반이 신뢰와 안정 속에 강원이 이끌어지기도 했다. 또, 탁구를 칠 때는 오직 탁구공에 관심이 집중되어 남다른 승부욕을 보여 주기도 하는, 흥과 멋을 아는 참 괜찮은 스님이다.

돌이켜보면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신심으로 부처님 전에 지극한 기도를 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배우게 해준 스님이다.

요즘 스님이나 신도들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기도의 염원을 불태우는 아쉬운 현실에서, 굳이 어떤 특이현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을 불태우는 진각스님과 같은 지극한 기도가 그리운 시절이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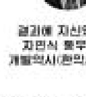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을 평형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간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대구 자비의 전화
제12기 상담원 모집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는 상담자원 봉사자 교육 및 모집을 위한 제12기 카운슬러 대학을 개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아실현을 이룩하려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강 일 : 2003년 4월 15일 ~ 5월 16일(매주 화·금)
■ 교육시간 : 오후 2시 ~ 4시
■ 교육대상 : 20세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상담 봉사에 관심있는 분)
■ 교육장소 : 자비의 전화 교육실 (053-753-9734)
■ 교 육 비

회수	날짜	요일	제 목	강 사	
1	4.15.	화	전화상담이론	영남대학교신경정신과	김진성 교수
2	4.18.	금	자원봉사이론	자비의 전화 교육부장	이정화 부장
3	4.22.	화	상담기법	여성의 전화	최은숙 강사
4	4.25.	금	청소년 문제와 상담	청소년 상담전화	전혜진 강사
5	4.29.	화	상담에서 본 인간심리	신경정신과	최태진 원장
6	5. 2.	금	철학과 인간문제	경북대학교 철학과	김윤동 교수
7	5. 6.	화	생활법률 상식		이종경 변호사
8	5. 9.	금	가족관계 및 갈등	대구대학교	박충선 교수
9	5.13.	화	상 담 수 칙	광명회 사무차장 자비의 전화 상담표교사	황 재 연
10	5.16.	금	21C 불교적 자녀교육 방법론	동화사 승가대학 강사	범천 스님
11	5.20.	화	상담실습 및 토론	교육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 제9교구 동화사부설 자비의전화
문의전화 : 053)753-9734
FAX 053)753-9735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 동방, 바지 : ₩160,000 /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 동방, 바지 : ₩150,000 / 두루막 : ₩130,000
3. 면(무지) (면솜 100%) — 적삼, 바지 : ₩130,000 / 동방, 바지 : ₩150,000 / 두루막 : ₩130,000
4. 무명 — 적삼, 바지 : ₩180,000 / 동방, 바지 : ₩200,000 / 두루막 : ₩180,000
5. 법복 (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7. 티셔츠 (차이나카라) — ₩30,000

[누비,적삼,바지] [누비,동방,바지] [누비,두루막]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사, 누비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 조끼·몸배 / 누비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 셔츠
8. 셔 츠 ₩5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60,000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 류마티스 / 초기 퇴행성관절염 / 혈액순환장애 /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 산후바람 / 냉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 21. 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회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